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9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7일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이번엔 어떤 선택? … '광주 핫코너' 봉선동의 대선 표심은

대선 D-20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 표심의 향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2·3·4·6면〉

부동산 정책 민감 광주의 '강남'
지난 대선 봉선 2동 제5투표소
국민의힘 윤석열 38.8% 득표
민주 "집중유세 총력, 이번에는…"
국힘 "전략지역 선정, 이번에도…"

봉선동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는데 기여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텃밭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봉선동 공략에 총력을 쏟고, 국힘은 지지율 지키기에 나서 봉선동이 이례적으로 전략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께 봉선2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열어 민심을 확인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지역을 집중 유세지역으로 선정해 30% 득표율을 유지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봉선2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봉선동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표심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선 개표결과를 보면 광주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5개 동은 광주시 남구 봉선2동(민주당 75.6%·국민의힘 21.7%), 동구 학동(78.6%·15.7%)·서남동(78.3%·18.4%)·지산1동(79.7%·19.5%)·충장동(80.2%·15.7%) 등이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챙겼다. 광주는 1987년 이후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전남보다 보수정당 득표율이 항상 낮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전남을 제치고 광주의 보수정당 득표율이 더 높았다.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봉선2동의 경우 국민의힘이 21.9%의 득표율을 올렸다. 봉선 2동 불로초 제5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이 3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봉선 2동에서 11.39%의 표를 얻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봉선 2동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 57.09%, 안철수 후보 33.39%, 홍준표 후보 2.48%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에서 봉선 2동에서 보수정당이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민주당 득표가 낮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입주한 한국아델리움1단지 155㎡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 1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 8억~9억원대에서 5년새 2배 가량 오른 가격에 실거래 된 것이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공시가격은 최고 11억3000만원으로 1주택 소유자 기준 종전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을 훌쩍 넘는다.

민주당과 국힘이 관심을 갖는 봉선동에서 뚜렷한 여론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봉선2동의 한 주민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수정당에 힘을 실어 줬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또 보수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의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내란 세력에 표를 줄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에는 광주시민들의 표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가에서는 봉선2동 주민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봉선동 지역에서 30% 확보가 목표"라면서 "최근 광주지역 온라인 가입 권리당원의 80%가 20~30대라는 점에서 조선대와 동구지역 득표율도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조선대와 충장로가 위치한 광주 동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선거비 보존 득표율인 15%를 획득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선거법에 걸릴라" 지역행사 무더기 차질 ▶6면
KIA 윤영철 "여유로움 되찾아 다시 시작" ▶18면
일하는 청년 - 광주다움 통합돌봄 ▶22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김문수 후보 'TK 공략'

이 "박정희 산업화 이끈 공 있다"
김 "침 뱉었지만 이제 꽃 바친다"

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한 이 후보는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열었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KIA, 5·18에 홈경기 응원전…"45년 만에 처음"

2000년 이전에는 홈경기 안 열려
그 뒤엔 추모 차원에서 응원 자제

5·18민주화운동 당일인 18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에서 45년만에 처음으로 응원 함성이 울려 퍼진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두산 베어스전에서 응원을 포함한 '5·18 특별이벤트'가 펼쳐진다.

그동안 5월 18일에 9차례 열린 광주경기에서는 5월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응원단을 운영하지 않았고, 팬도 응원을 자제해 왔다.

2000년 이전에는 5월 18일 KIA 타이거즈 홈경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총 9차례 홈경기가 열렸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5월 18일 열리는 홈경기에 오월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와 응원단 운영을 KIA 구단에 요청했다. ▶2면으로 계속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